

歐美의 石油産業 現況

— 大韓石油協會 · 弘報室 —

최근 國際石油情勢는 低油價時代를 맞이하여 수요의 감퇴와 이에 따른 石油産業의 經營收支 悪化, 設備過剩 등의 사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產油 國들의 下流部門 진출강화와 石油製品의 輸出增加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歐美石油産業의 対応과 石油政策의 方向 등에 관한 海外情報를 拔萃· 要約하였다. <編輯者註>

I. 石油情勢에 대한 展望

1. 國際石油需給의 동향

國際石油情勢에 대한 단기전망으로는 수급이 안정을 이룰 것이며, 가격도 배럴당 29달러의 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國際石油需給의 균형을 깨뜨린 큰 요인이었던 소비국의 在庫放出이 83년 4/4分期에는 거의 완료되었고, 계절적으로도 需要期에 접어 들었으며, OPEC의 協調 또한 유지되고 있으므로 市場의 균형은 지켜질 것이라는 것이다. 금년 4/4分期 中 OPEC의 原油生産量은 쿼터(1,750만B/D)를 상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예를 들면 걸프는 1,920만B/D, PIRA는 2,000만B/D로 내다 보고 있으며, 셸은 1,750만B/D의 生産쿼터를 上向修正하지 않을 경우, 프리미엄이 붙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中·長期的인 전망으로는 자유세계의 石油需要가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는데 역스, 모빌은 이러한 증가율을 1%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결과 자유세계의 石油需要에 관해서는 1985년에는 4,500만B/D(셸), ~ 4,650만B/D(PIRA), 1990년에는 4,900만B/D(셸)~ 4,650만B/D(PIRA)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石油需要의 증가는 開發途上國이 중심이 되고, 선진공업국의 石油需要는 현제수준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라별로 본다면, 프랑스

는 주로 原子力의 증가에 따라, 西獨은 原子力, 天然가스 및 石炭의 증가에 따라 需要가 감소할 것이고 國內石油의 감소에 따라 다소 수요가 증가하여 EC 전체로는 연 0.5%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美國은 天然가스 가격규제의 철폐 때문에 輕微한 需要增加를 보일것이다. 한편 原油價格은 1985년대 후반이 후로는 차츰 上昇할 것이라는 견해가 支配的이다.

2. 石油製品需要의 動向

EC委員會는 1990년에 가서는 石油製品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輕油 暖房油 등의 中間溜分수요가 증가하고 구성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81년 1억7천만톤, 35.8%에서 1990년 1억8천만톤, 38.0%) 한편 重油는 크게 감소되고(1981년 1억2천6백만톤, 26.5%에서 1990년 1억3백만톤, 22.0%) 石油製品需要의 中·輕質化가 진전될 것이며 더욱이 英國, 西獨, 프랑스에서는 자동차의 연료효율提高에 따라 揮發油수요 또한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同委員會는 美國의 경우 1990년에 가서 에너지政策 節約法의 規制에 따라 자동차의 연료효율上昇등으로 揮發油수요가 감소하고, 輕油 등의 中間溜分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環境에 대한 認識과 対応方向

石油産業을 에워싸고 있는 需給·價格動向에 대해서

는 前述한 바와 같이, 대체로 금년 후반기에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지만, 中·長期的으로 보아 세계의 石油需要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적으며, 또한 原油價格도 停滯의 기미를 보일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현재 및 장래의 어려운 經營環境에 대하여 歐美石油産業이 채택하고 있는 戰略은 「量的 擴大」政策으로 부터 「收益性重視」의 政策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石油需要擴大期에 형성된 肥滿體質을 개선하기 위하여 철저한 合理化대책을 下流部門의 전 과정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를 향한 石油産業의 이른바「生存을 위한 戰略」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살아 남을 수 없으리라는 石油産業 자체의 危機感의 露顯로도 보여진다.

II. 石油産業의 対応方向

1. 「生存을 위한 戰略」의 展開

두 차례의 石油危機를 겪으면서, 歐美의 石油産業은 사업의 확대를 추구해 온 종래의 經營자세를 버리고, 불리한 환경에 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예를 들면, 엑슨은 현재의 石油産業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하에서는 모든 기업이 살아 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非效率인 기업은 도태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모빌은 가장 效率으로 활동하는 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歐美主要國의 石油産業은 「生存을 위한 戰略」을 전력을 다해 전개하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이른바 메이저나 이에 버금가는 大企業들로서 국제적으로 原油의 生産으로부터 製品의 販賣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을 뻗치고 있고, 확고한 經營·財務體質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存統을 걸고 必死의 努力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石油企業은 上流部門(探鉦·開發部門)을 가지고 있으며 이 部門에서 막대한 이익을 享有하여 왔지만, 英國에너지셀, BP, 엑슨이 지적하였듯이, 上流部門에서의 이익으로 下流部門(精製·販賣部門)을 유지해 온 것이 아니며, 앞으로는 下流部門은 下流部門에서 收益을 올리기 위하여 合理化를 추진해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內容을 살펴보면, 精油工場에서 注油所에 이르기까지 下流部門의 전 과정에 걸쳐서 철저한 減量化, 集中化, 效率化를 기하여 精油工場의 폐쇄에 의한 과잉原油處理能力의 삭감, 수요의 中·

輕質化와 重質原油에 대처하기 위한 設備構造의 高度化, 流通코스트의 절감을 위한 注油所의 地域的集中化 및 과잉인원의 삭감 등이다. 게다가 일부 美石油企業(걸프, 소칼 등)은 시설의 売却 등에 의하여 市場占有率이 낮고 앞으로도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歐州市場으로부터 철수하고, 北美市場에서의 下流部門事業에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러한 減量化, 集中化, 效率化에 대하여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經濟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歐美主要石油産業은 原油조달, 精製, 販賣의 각 방면에 걸쳐서 보다 柔軟하고도 彈力的인 체질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精製設備構造의 高度化를 추진하고, 다양한 原油에 대한 적응력과 中·輕質化하는 수요에 대한 対応力을 확보함과 동시에 國內精製와 製品輸入을 믹스한 供給·마케팅을 병행하여 보다 낮은 코스트의 공급을 기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歐美主要國의 市場構造를 살펴 보면 英國은 BP, 셸이라는 英國系資本의 메이저에 엑슨이 가세하여 3社가 精製販賣의 약 60% 정도의 占有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英國에 있어서의 石油産業의 리더쉽을 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政府에 의한 民族資本育成的의 결과 CFP, ELF의 2社가 精製 47%, 販賣 50%라는 높은 占有率을 가지고 있으며, 政府와의 밀접한 제휴하에 事業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美國에서는 이른바 7大 메이저 중 BP를 제외한 6社 등 上位 8社가 精製 46%, 販賣(揮發油) 49%의 占有率을 차지하고 있지만, 각사의 전국 시장점유율은 어느 회사도 精製 5~9%, 販賣 5~7% 정도로 낮은 상태이다. 다만 販賣에 대하여는 예를 들면 동부는 엑슨, 서부는 소칼, 뉴욕은 모빌, 남부는 텍사코식으로 중심이 되는 販賣拠點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市場占有率이 높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歐美主要國에 있어서는 石油企業이 統合의 역사를 겪어 메이저를 중심으로 하는 몇몇의 기업이 높은 市場占有率을 가지게 되는 확고한 石油産業體制가 확립되어 있으며 集約化 또한 진전 중에 있다.

2. 具體的 対応

(1) 注油所의 閉鎖

歐美主要國의 石油會社들은 經營합리화를 위하여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미 精油工場의 全面的·部分的 閉鎖를 실시하여 왔다. EC委員會에 의하면, EC10個會員國의 原油處理能力은 그 절정에 달했던 1977년의 8

억3천2백만톤/년(약 1,660만B/D)에서 1983년 1월에는 6억7천3백만톤/년(약 1,350만B/D)로 감소되었으며, 1990년에는 4천4백만톤/년이 더 감소하여 6억2천9백만톤(약 2,260만B/D)로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BP는 欧州主要 6國國 전체로는 일부 계획중인 것을 포함하여 23개의 精油工場이 부분폐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内訳을 보면 이른바 7대메이저에 의한 것이 71.5%를 차지하고 있고, 主要石油企業이 각자의 經營戰略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採算이 맞지 않는 精油工場을 폐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美国에서는, OGJ誌에 따르면, 1980년末부터 1982년末까지 사이에 230만B/D의 原油處理能力이 축소되었으며, 또한 걸프, 텍사스는 이 과정에서 80만B/D이상의 精油工場을 폐쇄하였다. OGJ는 더구나 美国에 있어서의 精油工場폐쇄는 主要石油企業이 각각의 經營 전략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 외에 1981년부터 레이건政權에 의한 原油價格統制의 解除의 결과 소규모·간이 精油工場이 다수 撤退한 것에 따른 것도 많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빌은 지금까지 세계의 石油企業이 실시해 온 과잉원유처리시설의 삭감은 産油國에 있어서의 設備증강으로 相殺되어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설 삭감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설비의 高度化가 이루어지지 않는 精油工場은 폐쇄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歐美의 主要石油企業이 精油工場單位로 閉鎖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과잉원유처리시설의 삭감에 의한 需給均衡의 확보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效率性を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이러한 工場閉鎖에 따른 信用 문제 등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며 EC委員會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措置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2) 設備構造의 高度化

歐美主要國의 石油産業은 中間溜分需要의 증대, 重油 需要의 감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의 中·輕質化 轉向에 의거, 이미 2次設備(分解設備)의 확충에 의하여 設備構造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왔다. EC委員會에 따르면, EC10개국의 原油處理施設에 대한 2次設備의 비율은 1983년의 8%에서 1986년에는 23%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設備도입은 中間溜分增産을 위하여 水素化分解設備에 轉점을 둘 것으로 생각된다. 美国에서는 원래 揮發油중심의 수요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原油處理施設에 대한 2次設備의 비율은 1982년에 45.7%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더우기 1986년에는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OGJ, 엑슨資料) 各 精油會社들도 모두 設備構造의 고도화를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있는 必要條件으로 생각하고 精油工場의 폐쇄에 있어서도 2次設備가 없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폐쇄할 방침으로 있다. 또한 PIRA, 걸프는 이러한 設備構造의 고도화는 단지 需要의 中·輕質化에 대처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아, 혹은 突發的인 사태가 발생할 때 活用度가 높은 重質原油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주며, 安全性的 確保面에서도 유익하다고 指摘하고 있다. PIRA는 현재는 原油의 價格差가 축소되어 있고 또한 精油會社들의 利益 또한 크지 못하여 巨額의 設備投資를 실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나, 20년 후에도 石油精製業을 유지코자 한다면 2次設備를 保有하는 것이 불가결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빌, 걸프는 精油工場의 效率的 操作과 採算의 확보를 기하기 위하여는 2次設備가 항상 최대한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한편 BP, 모빌 등으로 2次設備投資에 대해서는, 이러한 투자가 과잉되어 경제성이 악화되지만 않을까 걱정하여 앞으로의 需要動向을 注視하며 착실히 進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BP는 유럽에 있어서의 일부의 國營기업이 현재의 과잉설비를 폐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대한 2次設備의 建設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차 中·輕質溜分の 공급과잉을 誘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3) 注油所의 削減

歐美主要國에 있어서도 揮發油수요가 停滯해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보다 더 價格에 敏感해졌기 때문에 揮發油販賣面에 있어서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판매를 주로 하는 獨立業者 또한 美国에 있어서 中間業者가 존재하여 이들이 市場을 더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各石油會社는 収益性保護를 위하여 採算이 맞지 않는 小규모의 注油所의 삭감 등으로 流通코스트의 절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各국의 注油所數의 推移를 살펴 보면, 1977년부터 1982년까지의 5년간 英國은 29,000에서 24,000(▲17%), 西獨 31,000에서 23,000(▲26%), 프랑스 47,000에서 44,000(▲6%), 美国 273,000에서 224,000(▲18%) 등으로 어느 나라도 減소를 보이고 있다. 프랑

스이외의 나라에서는 注油所의 삭감에 관한 규제가 없으며, 注油所數의 감소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注油所數의 감소의 구체적인 내용, 영향 등에 관해서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예컨대 따르면 美國에 있어서의 注油所數는 石油會社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獨立販賣業者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막론하고 감소하고 있으며, 石油會社가 마아케팅戰略에 의하여 削減하고 있는 것보다도 注油所 자신이 採算이 맞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는 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각 石油會社는 市場占有率이 낮은, 採算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철수하여 他 會社의 注油所와 교환하는 등에 의하여 販賣地域의 집중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注油所의 셀프 서비스화와 슈퍼 마켓트의 兼業에 의해 經營의 多角化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게다가 각 石油會社들은 모두 이러한 流通部門에서의 減量化와 효율화에 병행하여 採算이 맞는 價格策定에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英國에서는 赤字幅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揮發油의 값을 인상하고 있다.

Ⅲ. 政府의 姿勢

1. 유럽의 動向

石油政策의 방향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유럽 각국 모두가 自由市場政策을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石油産業의 生存戰略에 대해서도 각 石油會社의 自主의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各國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업계와의 콘센스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英國에너지부는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고, 西獨연방경제성도 국가로서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우선 업계와의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 또한 同省은 行政介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너지政策의 기본에 저촉되는 경우에 한하며 현재와 같은 상태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프랑스는 石油業法 등에 의하여 設備, 數量, 價格 등에 관해 강력한 권한이 정부에 부여되고 있지만, CFP에 따르면 프랑스에 있어서도 精油工場의 폐쇄 등의 대응책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 企業의 經營判斷에 맡기고 있다. 유럽 各國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石油會社들이 自主的, 적극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대처하고 있지만, 이것은 石油産業의 내부가 集約化되어 있고 그 骨格이 완성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石油製品價格에 대하여 最高價格制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프랑스, 벨기에)와 自由市場 메커니즘에 맡기고 있는 나라(英國, 西獨)에서 차이는 있을 지언정 石油産業 자체가 適正利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이것을 지지하는 노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 있어서는 1980年 이후의 石油産業의 經營惡化에 처하여 정부가 業界와 협의하여 原油價格의 변화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新價格시스템을 設定하였다. (1983年 1月 실시)

2. 美國의 動向

美國에서는 1980年 이전은 原油 및 製品의 輸出規制, 販賣面에 있어서의 거래에 대한 규제, 原油價格 등에 대한 統制 등 각종의 규제가 시행되어 왔지만, 1981年 1月の 레이건政府가 들어섬에 따라 이른바 규제철폐에 의하여 대폭으로 自由化되었으며, 현재는 輸出管理法에 의한 原油의 輸出禁止 이외에는 규제가 없다. 美國의 石油安定供給은 메이저를 중심으로 하는 大石油會社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石油會社들은 확고한 經營·財務體質을 바탕으로 세계적 視野위에 생존을 위한 戰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엑슨은 美國정부가 이러한 戰略의 전개에 대하여 規制도, 촉진도 실시치 않고 있으며 각 會社에 맡기고 있는 한편, 1981年의 규제철폐의 하나로 실시되었던 原油價格統制의 폐지에 따라 Entitlement 制度 下에서 값싼 原油에 의존하고 있던 中小精油工場이 시장으로 부터 물러 나고 構造改善이 촉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걸프는, 이러한 규제철폐에 의하여 美國産原油價格이 상승하고 美國에 있어서 石油소비의 감소와 石油依存度의 저하가 촉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美國정부의 역할은 天然가스價格의 철폐 등 美國에 있어서의 에너지資源의 效率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經濟·租稅政策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Ⅳ. 石油製品의 貿易과 産油國의 下流部門에의 진출

1. 石油製品貿易의 動向

1980—1981年에 있어서 歐美主要國의 石油製品 輸入

량을 각국의 소비량에 대한 비율로 보면, 英國 14%, 西獨 34%, 프랑스 14%, 美國 8%로 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는, 유럽공동체로서 相互間的 貿易은 자유화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거대한 製品輸出基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모두가 이곳으로부터의 제품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英國 43%, 프랑스 22%, 西獨 49%) 또한 地理적으로도 인접하고 있는 소련, 東歐圈으로부터의 輸入도 많아서 (英國 11%, 西獨 22%, 프랑스 17%) 이것들은 제품파이프라인, 河川 등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 또한 美國의 경우도 稅制와 港灣확보상의 이유로 美國石油會社가 걸프灣 海域에 건설한 精油工場 등으로부터의 輸入이 큰 비중(62%)을 차지하고 있다. 美國에 비하여 製品輸入의 比率이 높은 유럽諸國에 있어서도 輸入原油 내지는 國產原油를 自國內에서 精製하여 판매하는 消費地 精製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西獨聯邦經濟省은 현재의 제품수입비율인 1/3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에 대해 注視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製品輸入·販賣의 許可制에 의하여 EC地域外로부터의 製品輸入比率을 製品販賣量의 20% 이내로 하고 있으며, 英國에너지省과 西獨聯邦經濟省은 장차 제품수입을 증가시키고 石油의 安定供給에 대한 어떤 支障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EC次元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각石油會社는 經濟性 및 合理性의 관점에서 국내경제와 제품수입을 탄력적으로 運用하여 보다 코스트를 절감할 수단을 찾고 있으며 또한 EC委員會와 英國에너지省은 近年의 2次設備의 확장에 따라 重油를 2次設備用的 원료로 輸入하고 있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유럽의 경우 최근의 제품수입의 상당부분이 廉價의 現物市場계품 輸入·販賣에 의하여 코스트를 引下시키려는 동시에 赤字를 해소하려 하는 石油會社 자신의 조치로 행해진 것이며, 西獨聯邦經濟省은 製品輸入의 8 할은 精油會社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유럽에 있어서는 石油製品의 輸出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英國, 프랑스는 製品의 純輸出國으로 되어 버렸다. 1980~1981년에 걸쳐서 歐美主要國의 제품수출을 뺀 제품純輸入량을 각국의 소비량에 대한 비율로 살펴 보면 英國 ▲6%, 西獨 28%, 프랑스 ▲1%, 美國 6%로 나타나 있다. 특히 英國에너지省은 英國石油會社들이 重油를 수입, 분해하여 附加價值가 높은 揮發油를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 産油國輸出精油工場에의 対応

産油國의 輸出精油工場으로부터의 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EC委員會는 현재의 수입규모로 보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하고 있다. 장래에 대하여도 産油國經濟의 不況에 따른 건설의 延期, 제품수송의 非經濟性, 産油國 자체의 內需증가, 소련 및 東歐圈으로부터의 輸入의 감소 등에 의하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미 건설중인 精油工場은 2~3年内로 가동을 시작하는 외에도 그 價格設定여하에 따라서 國際石油市況에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EC委員會도 注視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PIRA는 産油國에 의한 石油製品輸出은 原油市場의 攪亂要因으로 되어 産油國으로서도 利益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미 건설 중인 精油工場은 앞으로 3年内로 가동을 개시하고 100만~150만B/D의 製品을 市場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것은 量的으로는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市況에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消費國에는 강한 價格引下압력을 가해 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産油國의 石油製品은 重油가 많기 때문에 歐美의 수요와 合致될 뿐만 아니라 제품규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3. 産油國의 消費國下流部門에의 進出

産油國의 消費國下流部門에의 진출은 이미 쿠웨이트에 의한 걸프의 베네룩스·北歐精油工場, 注油所 등의 買取, 사우디 아라비아에 의한 아모코의 이탈리아精油工場, 注油所 등의 買取 등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또한 英國에서도 쿠웨이트가 걸프의 精油工場 등을 買取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産油國의 진출에 대하여 英國에너지省은 産油國이 사들인 精油工場에 原油를 차별적으로 싸게 공급하여 市場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모빌은 OPEC諸國이 마케팅의 實情을 이해할 수 있는 原油價格의 설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西獨聯邦經濟省은 産油國이 消費國經濟에 부담케 되어 市場攪亂의 行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는 등 적극적 측면의 견해도 많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하여 PIRA에서는 産油國에 의하여 買取된 精油工場이 最適稼動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供給能力의 과잉을 야기시킬 것이라

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BP는 低코스트의 原油를 보유하고 있는 産油國의 진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EC委員會에서도 産油國의 진출에 대해서 原油를 공평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한 利點이 많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일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일시적으로 供給削減이 물고 올 영향은 심각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유럽諸國은 앞으로도 産油國의 동향에 關係 注視하면서 적절히 대처하여 EC次元에서의 協力を 해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

V. 맺는 말

上述한 內容들을 간추려 볼 때, 얻을 수 있는 최대의

教訓은 冷嚴한 石油情勢下에서 歐美主要國의 石油産業이 積極果敢한 生存戰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歐美主要國에 있어서는 각 기업이 자체의 經營책임에 의하여 침체에 빠진 石油需要, 불투명한 장래 등의 情勢下에서 精油工場으로부터 注油所에 이르기까지 下流部門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減量化, 集中化, 效率化를 도모하려 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실행에 옮겨 왔다. 게다가 歐美主要國의 石油産業은 국제석유정제의 불투명성과 石油製品貿易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減量化, 集中化뿐만 아니라 設備構造의 高度化, 國內精製와 製品輸入을 혼합한 마아케팅에 의하여 體質을 보다 유연하고도 彈力的인 것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 海外石油業界動向 □

日本の 大協石油와 丸善石油가

精油部門을 통합하여 새 精油会社를 만든다.

日本の 民族系 석유회사인 大協石油와 丸善石油가 지난 10월 25일 정유부문을 통합하여 내년 3월에 새로 精油会社를 설립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兩社의 통합은 그 동안 거액의 부채로 經營이 악화되고 있는 丸善石油와 그 주거래은행인 三和銀行이 지난해부터 타개책을 검토해 온 결과, 大協石油와 그 주거래은행인 日本興業銀行과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上場을 유지하면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大協과의 통합, 집약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최종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내년 3월에 신설되는 새로운 정유회사는 出光興産, 日本石油에 이어 日本에서 제3위의 정유회사가 된다. 또 현재 판매회사로서 上場을 유지하고 있는 兩社는 앞으로 판매부문도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이 日本의 석유업계에 새로운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民族系인 日本鋳業, 아시아石油,

東亞石油 등 3社가 지난 65년에 판매부문을 통합하여 共同石油를 설립한 이래 1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大協石油와 丸善石油의 합의 내용을 보면, ① 兩社의 정유부문을 분리시켜 공동으로 精油 전문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② 새 회사의 본社は 東京에 두고, 사장은 中山 大協石油사장이 겸임하며, ③ 새 회사의 출자비율은 46대 46, 日本興業은행 5%, 三和은행 3%로 하고 ④ 社名은 앞으로 兩社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 등이다.

丸善石油는 그 동안 방만한 經營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에다 증설에 따른 추가부담 등으로 지난 65년 이후부터 經營체질이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또 두번에 걸친 오일 쇼크에 따른 高價原油의 도입 등으로 타격을 받아 왔다.